第二版 大正十四年七月十日 【金曜日】 The Chosun Ilbo. (The Korea Daily News) Seoul. 【大正九年八月二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一千七百六十五號 【一】

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翻波逐浪의 中國政情 ―內政外交가 아울러 荒亂―

一

昨年의 秋期 蘇浙의 戰亂이 東南의 一角에서 일어나 一轉하야 奉直爭衡의 局面을 짓고 因하야 天下動亂의 形勢를 이루엇슬 때에 一世의 識者만히 그 國際化할 動亂의 前途를 疑懼하야 자못 深大한 興味로써 그의 趨移하는 序幕을 注視하엿섯다 그러나 吳佩孚氏의 意外의 失脚과 밋 段祺瑞氏의 政界에 對한 潛勢力은 裡面 許多한 暗流를 不計하고 오히려 一時의 小康을 保持하든바 그것이 約半個年의 時日을 지낸 後 上海에서 비롯한 示威動亂으로 因하야 다시 國際上 밋 內政上 重大한 紛糾의 局面을 現出케하니 凡人의 意想外로부터 驟然히 爆發하는 政界의 玄變은 원래 容易히 揣摩할 수 업는 바이다

二

일즉 直隷派를 後援하야 隱然 그의 黑幕을 짓든 英米系의 策動이 一勢力이오 奉天派와 밋 段氏의 安福派를 通하야 平昔의 扶植한 地盤을 維持코저 努力하든 日本의 勢勵이 一勢力이엇스며 이에 關하야 항상 縱橫無碍한 應變的 策略을 發揮하야 革命煽動에 因한 思想的 南下에 熱中하든 赤色露國의 惑星的 活動이 또한 一勢力이엇섯다 그러나 對日 英米經濟斷交의 決議와 써로는 날에 잇서 不平等條約을 보는 對支官議의 呼號 撤廢問題를 核心으로 對中國際會議의 開催를 斡旋코저하는 米合衆國의 攻勢外交에 對하야 英帝國의 外交를 指導하는 外相 『쳄벌렌』 氏는 對中國行動自由의 聲言으로 그의 强硬한 態度를 固執하며 日本은 頻發하는 領事館의 襲擊 或은 租界의 包圍로써 中國人 排日의 感情이 依然 强烈함에 不計하고 다만 日中親善의 流言과 함께 形勢觀望의 煩悶의 熟考를 持續하는 바이며 오즉 赤露는 責任잇는 使節의 地位로서 公然히 援助의 態度를 보이고 個人으로써 革命政府顧問의 職務를 行使하야 써 局面展開의 可能한 限度를 다하고저 하니 中國各派勞働의 紛糾한 暗鬪와 아울러 자못 逐浪하는 飜波 變態가 百出하는 慨가 잇다

三

累十年來 米國의 對中國外交가 一貫하는 懷柔政策으로써 終始된 것은 吾人이 이미 重言치 안는다 그러나 前述한 對中國際會議의 開催를 斡旋코저하는 米國이 그에 對한 中國側의 考慮條件으로써 法律의 完全한 修正 完全한 司法機關의 設立 各派를 代表할 强固한 中央政府의 組織을 前提的 要件과 가티 指摘한 바 잇스니 이는 國際會議를 兒戱와 가티 볼 수 업는 以上 그들의 當然히 要求할 必須條件이다 即 華府會議 當時 『루트』 四原則의 第二項의 趣意 밋 對中國九個國條約의 實現을 그의 基本的 趣旨로 하는 米國의 態度로서는 매우 當然한 順序일 것이다 治外法權 關稅 駐屯軍 밋 其他 一切 中國의 主權의 獨立 또는 領土的 行政的 保全의 尊重을 具體化할 準備行爲로서 不可缺할 順序이라 할 것이다

四

『中國이 有力하고 또 鞏固한 政府를 完成 又 持케하기 爲하야 中國에 對하야 充分하고 또 無制限한 機會를 與한다』 이란 文句는 前記한 『루트』 四原則의 第二項의 內容이다 그리고 비록 中國에 對하야 絶大한 友誼를 가진 善隣일지라도 中國으로서 『有力하고 鞏固한 政府를 完成 支持』함이 업시는 어찌할 수 업을 바이오 彼等列國이 中國에 對하야 『充分하고 또 無制限한 機會』를 줌이 必要한 것은 勿論이어니와 現下의 形勢로는 彼等 돌리혀 全然 背馳의 政策을 弄하는 바이니 米國의 主張은 어떠한 經路로써 果然 所期의 成果를 收穫할 수 잇슬가? 對中國三個條의 考慮의 要件은 現下의 中國의 國情에 잇서 果然 容易히 實現될 수 잇슬가? 그는 吾人의 辯證을 기다리어서 알을 바 아니니다

五

英米의 對極東政策이 반드시 永久히 一致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은 本欄에서 數次 論評한 바 잇섯거니와 日昨 倫敦 『데일리·텔레그라프』 紙의 米國의 國際會議斡旋으로써 日本에 對한 挑戰이라고 喝破한 것은 將來 困苦한 그의 對極東外交를 豫想하고 미리 適意의 伴侶者를 求하고저 하는 冶遊郞的 情思에서 나온 一道의 秋波임을 意味하는 바이오 이에 對한 日本의 態度 또한 直前의 經驗한 悔恨의 情焰을 엇그면서 不得已 積極者의 面前에서 蕭條한 情意投合을 强作하는 遊女的 身分을 벗기 어려운 바 잇슬 것이니 이는 日英米列國이 모다 各人各樣의 心事와 밋 策略으로 混亂中의 中國에 臨하고저 함이라 此間에서 縱橫馳驅코저 하는 赤露를 아울러 생각할 때에 吾人은 그 局面의 複雜함을 指摘치 아니치 못하는 바이다

六

하물며 또 張作霖은 이 變亂의 機를 타서 이미 數萬의 精兵으로 長江의 下流를 進占하고 馮玉祥은 對英決戰을 揚言하면서 二十萬의 精兵을 訓練함을 報하며 民黨左傾各派와 馮氏와의 聯絡은 자못 刮目할 바 잇다 하고 偃旗息鼓하야 멀리 戰陣의 後方에 屛跡한 觀이 잇는 吳佩孚 밋 其他 直隷各派의 軍將들도 또한 隱忍持重 써 政機의 自發함을 기다리는 바 잇슬 것이니 最近 唐紹儀, 章炳麟 等 國民黨右翼諸氏가 段執政糾彈의 第一聲을 보냄과 함께 벌서 政府의 困苦를 推想하는 事情을 들어볼진데 內政外交 아울러 荒亂한 그들의 境遇 또한 嘆惜함즉하도다 中國民은 지금 新時代를 向하야 邁進한다 그러나 中國民은 지금 苦悶中에 헐덕어린다

駐英露大使의 歸還은 英露關係의 新危機激發 『론돈、떼일리、뉴우쓰』紙의 論調

(『셀도』九日發) 『론돈、떼일리、뉴우쓰』 紙는 八日 社說로 英國駐箚露西亞大使 『라코우스키』 氏의 歸還은 英露關係에 新危機를 激發하는 것이라고 論하엿더라

英國『칼뷘、홀』 燒失損害百萬磅

(『셀도』八日發) 英國 『우라스고-』 의 有名 『칼뷘、홀』 은 火災로 燒失되엿는데 損害 百萬磅이라고 豫想되더라

佛國駐屯兵 今週中退去乎

(『셀도』八日發) 占領地帶에 잇는 『셀룬』 의 佛蘭西駐屯兵은 今週中에 退去하리라고 巴里政界에서 信하더라

露波關係 漸次險惡 退去命令과 動員의 準備

(布臘八日發) 露國官憲은 今回 波蘭國境에서 兩國이 確執한 結果 波蘭人에 對하야 四十八時間內로 退去하라고 命令하고 軍隊의 動員準備를 하더라

八時間勞働法 佛下院에서 批准

(巴里八日發) 佛蘭西下院은 滿場一致로써 華盛頓條約에서 協定한 八時間勞働法協約을 批准하엿다 但 佛蘭西의 批准은 獨逸이 該條約을 批准할 때까지 此를 佛國의 産業에 適要치 안켓다는 條件附이더라

石炭保留法案 鑛山危機에 關한 英國政府의 對策

(『셀도』八日發) 英國內閣은 鑛山의 危機에 關하야 審議하엿는데 當局者의 聲明한 바에 依하면 政府는 工夫가 同盟罷業을 行할 時 英國의 主要鑛業을 爲하야 石炭의 大部分을 保留함을 得하는 法律案을 起草中이리더라

波蘭委員歸國 露工業家會見後

(『셀도』八日發) 波蘭工業委員은 露國 『쏘비에트』 工業家와 折衝할 目的으로 過般來 滯露中이엇슨데 交涉이 缺裂되지 안코 歸國하엿더라

漢口의 日本人 損害賠償請求交涉 總損害約十七萬圓이라고

(東京電) 漢口의 示威로 因한 日本人의 總損害는 約十七萬圓에 達하야 林總領事로부터 中國官憲에 交涉中이나 要領을 不得하고 結局 北京에서 中央政府와 直接交涉키로 되는 貌樣인데 一方 被害日本人은 尙今도 店舖를 閉할 수 업서 非常한 窮地에 立하엿더라

政界前途 아즉도 疑雲疊疊

(東京電) 政友會幹部가 六日 急遽히 大磯에 歸養中인 田中總裁의 歸京을 請하야 首相官邸에 開會한 幹部會는 再次 關係에 依하야 政憲의 提携가 一層 堅固함으로 政局의 前途는 何等의 不安이 업다 當傍中이나 무엇인지 不安의 氣風이 잇서 잘못하면 暴風雨前의 靜靜함과 如함이 아닌가 생각되는 點이 잇더니 果然 岡崎農相은 黨幹部會 終了後 千駄谷 山本第二郞氏邸에 赴하야 伊東己代治伯 及 山本氏 等과 要談하야 過日 國公과의 會見內容을 中心으로 現下 政局 及 對策에 就하야 夜深토록 熱議하엿는데 勿論 閣僚相互間에 交換된 意見의 內容은 極秘에 附하나 要컨대 先般 國公이 田中男에게 말한 自重이란 말의 意味는 此際 單純한 正面解釋으로 밀할 수 업는 點이 잇서 政局의 前途에 對한 善處方法에 關하야 깁히 注意한다 함에 잇더라

日次官會議 九日首相官邸에서

(東京電) 九日의 次官會議는 九時三十分에 首相官邸에서 開하고 湯淺內務以下 各省次官 江木翰長 塚本長官이 列席하야 時節 湯淺次官이 北海道 視察狀況에 對하야 報告한 後 同地方의 鐵路河川港灣 等은 改良及事業의 擴張充實을 行할 必要가 잇다고 述하얏고 出淵外務次官으로부터 中國의 其後狀況으로 關稅會議召集에 對하야 中國側의 拒絶 其他에 對하야 詳細한 報告가 잇섯스며 桑山遞信次官은 中國郵便條約에 因한 日本郵便物中 書狀은 二十錢 葉書는 八錢으로 協定하엿스나 今回 列國과 協定한 減額할 必要가 잇다 日本으로서 如何한 程度까지 引下하겟느냐를 遞信外務大藏次官間에 意見交換이 잇서 引下로 因한 減收補充의 具體案을 作製한 後 決定하기로 하고 十一時에 散會하엿더라

우리農民에게 술과담배를달라 地主의 通路를 作하여주는 當局의 惡政策을 强硬肉迫 二百의 寶城勞組員決議

寶城勞働組合의 第二回月例總會를 去六日夜 當地靑年會館內에서 開催하엿는바 創立未幾임에 不拘하고 逐日增加하는 會員數는 約二百名에 達하엿스며 더욱 當日出席者는 百五十餘名에 達하야 盛況裡에 開催하엿든바 順序에 依하야 … 和케하며 주기를 要求하자는 決議가 滿場一致로 可決되고 그 交涉委員으로 五氏를 選定한 뒤 또 本組合員은 悉皆 蘿髮일하를 討議한 後 靑年有志의 演說과 組合員一同의 勞働歌合唱으로 無事히 閉會하엿는데 會場은 始終으로 極히 緊張하엿다더라(寶城)

政府의 方針 無可奈何라 郡守金秉瑞氏 談

이와 가치 寶城勞働組合總會의 決議를 帶하고 交涉委員一同이 곳 寶城郡廳에 郡守를 訪問 交涉한즉 金郡守는 酒草에 對한 政策은 政府의 既定方針인즉 郡에서 何等의 能力이 업스나 農民에게 그만한 苦痛이 잇슬 것은 豫想하엿슴으로 同感同情하는 同時에 한 參考의 材料로 認하야 機會를 보와서 上道할 때 意見을 陳達하여 보겟노라고 對答하엿다더라(寶城)

基本金募 集方法으로 土地의 共合耕作

… 地의 共合耕作에서 나는 生産으로 此에 充當키로 하엿스며 이에 爲先 肥料로 陰六月三十日을 期하야 每人前 折草一負式 一齊히 聚合할 事와 또 本組合員은 全部가 純農業勞働者임으로 雨晴寒暑를 不計하고 틈이 업시 일하는 터인데 酒煙等 刺戟剤가 切實히 必要한 바 最近에 至하야는

煙草專賣 政策으로 말미아마

嗜好하는 煙草도 마음대로 得치 못할 뿐더러 酒稅令 實施 以後로 當局에서 自家用酒造免許에 對하야 極端의 消極策으로 免許者를 縮少함으로 中產以上의 農家에서는 平素 自家用酒로써 雇傭者에게 먹여주던 그것 外지 酒稅關係라고 還藉하고 只今 가티 打麥移秧節에 덧붓칠 뜻분 때에도 不拘하고 麥醪一碗도 饗應치 아니하니 이것은 間接으로 郡當局이 勞働者를 極히 壓迫하는 惡政에 不外라 此時 臨場하야 官이 注意速呼 그래서 먼저 郡當局에 이를 交涉하야

自家用酒 免許政策을 緩

大連博에 出品

大連에서 開催한 勸業博覽會에 群山에서 出品할 것은 商業會議所와 群山府廳에서 取纏中이라는데 當地에서 客月中에 開催한 土産品評會에서 入賞된 味魚及櫻干 等을 出品하기로 하고 其他에도 從來 大連으로 輸出하여 오든 酒類도 出品할 貌株이라더라(群山)

偵察飛機墜落 搭乘者二名慘死

(佐世保電) 大村海軍航空隊에서는 九日午前九時부터 十年式 艦上偵察機에 江男好留一等兵曹 操縱 大塚兵曹 同乘하야 飛行練習中 突然 發動機에 故障을 生하야 一千米 突上空에서 桑田에 거구로 墜落되여 搭乘者 兩名은 無慘히 即死하엿고 機體도 餘地업시 破損되엿더라

黃海社의 醜策 挾雜輩와 結托하여 가지고 洞中共有林野를 빼앗고저 長淵大救面民의 奮起

黃海道長淵郡大救面의 蔡故林野를 不正當付한 事實로 因하야 此를 取消하라고 代表者들이 總督府에 交涉中이라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이에 對하야 뜻밧지 속이려든 黃海社에서도 事實이 露現됨을 따라 不得已 變更하야

買收價格 을 올녀서

一坪에 五厘式 밧게 안준다던 것을 一錢式 사주고 사는 中이라는데 그리하면서도 一便으로는 無賴漢들과 結托하야 가지고 온갓 挾雜과 醜態만 行動을 함으로 住民들은 크게 憤慨하여 하는 中인데 이제 한 例를 들면 同會社에서는 그의 使用人인 安龍觀이라는 者를 식혀서 同面 杜山里 洞有인 十二町步의 牧畜場을 申

買賣契約

告할 때에 連署하엿던 사람中에 一人 崔某와 一百九十圓에 契約金으로 二十圓을 준 일이 잇는데 이 事實을 드른 그 洞民들은 크게 憤慨하야 該安龍觀을 차자서 事實의 有無를 뭇고 보즉 그 牧畜場은 洞民의 共有일 뿐 아니라 申告에도 四人의 連署로 한 것임을 한 사람으로 買收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이니 契約을 그만 斷念하라 함에 安은 그런 줄을 모르고 산 것이 잘못이나 先金 一百圓을 준 것이니 엇절 수 업다고 뜻지 아니함으로 洞民들은 더욱 憤慨하야 約條金으로 二十圓밧게 더 아니 주엇다는데 百圓은 무엇인가 設使 百圓을 주엇거나 또는 千圓을 주엇거나 그네의 잘못이니 우리 상관할 必要는 업다고 나온 뒤 곳 倒閉의 術策의 집으로 차저가서 理由를 말하야 그로부터 그 牧場은 비록 自己가

連署申告 는 하얏스나

그 洞里를 떠난 以上에는 아무 權利가 업는 것이오 여러 사람이 連署한 契約을 지아니하겟다는 意味의 誓約書를 밧엇다 하는데 장차 엇더케 될는지 一般은 매우 注目하는 中이더라(松禾)

十萬坪의 竹林助成 全北의 十年計劃

全羅北道의 現在竹林面積은 二萬町에 達하는데 道當局에서는 이를 助成키 爲하야 十年計劃으로 現在의 約五倍에 達토록 努力하리라더라(群山)

副業獎勵會 成川金組評議會

成川金融組合에서는 지난七日午前十時부터 第二回評議會를 同組合會議室에서 開會하엿는데 今般 議案은 産業에 對한 宣傳을 爲主로 하고 左와 如한 決議를 하엿다더라

一、組合員募集의 件
一、繭賣期에 預金吸集의 件
一、組合精神普及의 件
一、模範組合員表彰의 件
一、優良部落獎勵施設의 件
一、副業獎勵의 件
一、優良組合員指導의 件
一、里總代增設의 件 (成川)

革造社를 創立하야 思想書類發刊 大邱有志의 發起

大邱의 有志 洪光氏 外 七人의 發起로 今般에 文藝、學術、思想批評 等 書類를 中心으로 한 月刊雜誌를 發刊코자 革造社를 創立하얏는데 그 事務所를 笠町二四〇番地에 置하고 發起人은 左와 如하다더라

洪光 徐炳奎 李祥根 鄭海洸 金洪默 任允宰 趙慶鎬 李周世 (大邱)

纛島에 兒童講習會 七月廿五日부터 開催

市外纛島에 잇는 交友修養會에서는 無產兒童을 敎養코저 來二十五日부터 纛島公立普通學校講堂에서 夏期講習會를 開催한다는데 願書는 纛島面所나 公普校內에 提出하면 可하다 하며 또 出願期限은 來二十日까지라더라(高陽)

駐在所移轉式 屠牛祝賀 平南价川東面서

平南价川郡東面警察官駐在所는 只今外지 同面野寺洞의 民家를 借用하여 오던바 今般 同面東倉에 新建築하고 移轉한 後 去八日에 屠牛하고 落成式을 盛大히 擧行하엿다더라(德川)

每土曜에 討論會

平南德川郡沙屯市耶蘇敎會에서는 安國鼎氏主催로 土曜日마다 討論會를 開催한다더라(德川)

竊盜全盛의 開城

開城警察署管內에서 六月中 發生된 犯罪統計는 如左한 中 最多數가 竊盜이라더라

公務執行妨害一 失火二 文書僞造一 賭博二 傷害四 誘拐二 竊盜二三 詐欺九 橫領五 贓物牙保一 紅蔘事實違反一 모루히네 藥品取締令違反一 (開城)

金麗植博士講演

平壤府蓮花洞敎會 『그리스도』 少年會에서는 第二週創立紀念式을 來十日(金曜)下午八時三十分에 同禮拜堂內에서 擧行할 豫定인데 金麗植博士와 韓景職先生의 講演이 有하리라더라(平壤)

巨濟에 幼稚園新設

巨濟屯德面述亦里耶蘇敎會에서는 去月二十四日부터 同禮拜堂內에 幼稚園을 創設하얏는데 保姆는 平壤 니언學校 出身의 張牙只(二七)이라 하며 兒童은 四十五名에 達하는바 그 成績이 頗히 良好하다더라(巨濟)

八個學校聯合 大展覽會開催 全北庭球蹴球大會도 豐山稀有의 盛況

既報한바 咸南豐山郡安水面安水靑年會主催의 第二回學藝品展覽會及第一回北鮮庭球蹴球大會는 豫定과 如히 去月二十二日부터 三日間 安水面安成學校構內及運動場에서 開催하얏는데 定刻에 同靑年會議長 金永彩氏의 展覽會에 對한 開辭가 잇슨 後 同運動會와 審判部長 趙尙熙氏의 簡單한 開辭와 審判規定通過 後에 곳 展覽會와 競技가 始作되엿는데 第一日의 庭球優勝은 豐興派軍의 手에 歸하고 第二日의 少年軍 蹴球優勝은 把撥公普少年軍으로 도라가고 第三日 靑年軍의 月桂冠은 北靑體育軍으로 歸하얏다는데 該 展覽會의 參加學校 等은 如左하며 더욱 當日 會衆은 三四千名에 達하엿다더라

出品學校 安成學校 把撥公普校 豐興學校 陽新學校 新陽夜學 仙遊夜學 日新義塾 出品點數 習字二八〇點 圖畫二二五點 作文三三七點 手工一一一點 (豐山)

直指寺探勝 倭館支局主催로

既報한바 本報倭館支局主催 倭館靑年會後援의 三山寺探勝은 지난달 十七日과 二十四日이 工巧하게도 모다 雨天임으로 不得已 秋期의 擴張時節로 延期하고 金泉의 名勝인 黃岳山直指寺를 探訪키로 되야 一行 二十餘人이 지난 四日 午後 急行列車로 秘松驛에 下車하야 約一里의 徒步로 同六時頃에 到着하야 寺中全景을 踏破하고 一部 詩客들의 漢詩吟詠이 잇섯스며 自然의 美에 陶醉한 一行은 終夜 悅樂하고 翌日 午前九時頃에 仙境을 떠나 徒步로 金泉에 到着하야 金泉支局의 案內로 金泉少年刑務所와 眞氣會社 其他 市街一般을 觀覽한 後 同夜 八時車로 一行은 元氣壯盛裡에 倭館에 到着하야 無事히 探勝을 마치엇더라(倭館)

元山驛取扱貨物

元山驛貨物取扱所에서 六月中에 取扱한 貨車受發總額은 合計 三萬二千六百七十二圓五十五錢에 達하는데 發着貨物取扱高는 如左하다더라(單位噸)

發送 乾明太三六九 鹽魚三五〇 海藻一六〇 粟四五〇 鹽一二〇 石炭二一〇 灰二六 木材一一四二 石炭二七 二〇 明軍需品三〇〇 局用品三五 二金屬類六四二 其他一六四四 計五六一二

到着 米七六八 麥三〇 大豆二三 四 粟一九八〇 雜穀五二 鹽七八〇 叭一一七 薪炭二二一 木材四〇 黑鉛八一〇 煙草九八 馬二九頭 局用品一二四 石炭一四六 石灰一二〇 其他一一四 合計六七〇〇 (元山)

長湍津南의 講演

京畿道長湍郡津南面面長 金在源氏는 去七日下午九時半부터 同面東場里周山洞 李建相氏 私宅에 農民 七十餘人을 모와 노코 長時間 勤儉貯蓄을 力說하엿더라(長湍)

會名改稱等 新委員會開催 大邱第四靑年會에서

大邱第四靑年會에서는 第一回定期總會에서 選擧된 新委員會를 지난 四日 下午十二時에 新町朝陽會館會議室에서 開하고 左記事項을 決議하엿다더라

一、常務委員으로 陳平軒 趙東穆 徐喜根 三氏를 選定함
一、會館은 決定할 때까지는 南城町百〇四番地에 臨時事務所를 置함
一、每月第一土曜日下午八時에 定期執行委員月例會를 開함
一、總會에서 委任을 밧는 會名改稱에 對하야는 左記와 如히 決定함

改稱會名 大邱靑年同盟

右名稱에 對한 會員各自의 承認을 得하야 多數로써 決定될 時는 世間에 宣布할(七月十五日內로) (大邱)

松坡護岸期成會

已報한바 松坡護岸工事期成會는 七日下午九時半에 廣州郡中垈面事務所內에서 臨時議長 洪璇杓氏의 司會로 開會되엿는데 役員은 左와 如히 選定되엿고 規則制定에 對하야 甲論乙駁이 잇다가 結局 다음 總會時에 열기로 하고 同十二時에 閉會하엿다더라

會長 田中宗吉 事務理事 金相玉 常務理事 李景熙 田口今朝男 張德均 吉村幸之助 幹事 金樂鉉 張順賢 播井平助 李弘鐘 金俊鉉 全洛奎 金寬大 稻沼玉平 贊助員 中垈面各里區長 書記 尹昌文 吳世瑛 顧問 洪璇杓 淺木幹雄 (松坡)

衡平運動促進 靑年會에서

慶北醴泉에 잇는 衡平分社는 創立한지 二週年에 至하는바 實地運動에 큰 活躍이 업슴으로 當地 新興靑年會에서는 이 運動을 積極的으로 促進식히기 爲하야 同靑年會員 多數가 衡平分社에 入社하야 모든 일을 援助하는 中인데 去五日 午後九時 分社長 朴元玉方에서 爲先 幹部會를 開催하고 諸般事項을 討議한 結果 來十一日에 臨時總會를 開催할 일과 八月九日에 創立二週年紀念祝賀式을 盛大히 擧行할 일 等의 決議가 잇섯다더라(醴泉)

公州에 趙博士講演

지난 五日 下午八時半부터 公州大和町基督敎禮拜堂에서 博士 趙炳玉氏를 請邀하야 犧牲의 生活이라는 演題로 學術講演을 試하엿는데 滿場의 聽衆에게 만흔 感銘을 주고 十二時에 閉會하얏다더라(公州)

荒廢하여가는 農村復興 大邱에 農村社設立

大邱의 有志 鄭雲海 徐相日 徐萬達 等 三氏는 今般에 『農村社』를 創立하얏는데 營業에는 徐相日、編輯에는 徐萬達、庶務에는 鄭雲海氏 等으로 各各 責任을 지고 着着 進行中이라 하며 同會의 事業綱領은 如左하더라

一、農村狀況調査研究
二、農事改良及副業獎勵에 關한 意見發表
三、農村에 關한 講習會 講演會 等 開催 又는 請願
四、月刊雜誌 農村發行
五、農村의 實地開墾及事業設計
六、農村問題에 關한 諮詢와 委囑에 應함
七、農村啓發에 有益한 事業의 獎勵 又는 援助 (大邱)

長水戶籍事務檢閱

全北全州地方法院南原支廳에서는 戶籍事務檢閱하기 爲하야 戶籍主任된 田池書記가 去六月二十五日에 管轄된 長水에 出張하야 各面戶籍事務檢閱을 終了하고 本月二日 出發歸廳하얏다더라(長水)

兎山公普의 學級延長實現 學父兄會의 結果

黃海道金川郡月城面兎山公立普通學校는 設立한 以來 四學年制로 敎授하던바 今年三月中旬에 學父兄大會를 開하고 郡當局에 陳情書를 道當局에 交涉委員을 시겨 直接交涉하엿던바 經濟關係로 許可할 수 업다 함에 落望千萬이더니 六月二十六日에 突然히 道廳으로부터 五六學年으로 延長하라는 許可狀이 왓슴으로 學校當局에서는 五六年生徒募集에 大端히 紛忙中이라더라(安峽)

宜川納凉歌劇

宜川邑明信幼稚園에서는 夏期少年少女歌劇大會를 열고저 方今 準備中인바 歌劇種目은 童話劇 遊戲唱歌 舞蹈 等이오 여러 學生들도 出演하리라는데 日字는 來十六日 밤이며 場所는 同園內이라더라(宜川)

日本에서 叺 五百萬枚 全北에 注文왓다

日本에서 人造肥料用으로 叺五百萬枚의 注文이 全羅北道에 왓다는데 道에서는 繩叺組合主事를 急遽 招集하야 該注文引受에 對한 協議를 한바 지난 六日에 이르러 群山興農會社 兩側에서 上渡하야 打合하얏다는데 年年 群山에서 輸出되는 米叺로만 하야도 本道의 産으로는 叺不足인 形便인데 兩會社에서 其의 一部를 引受하얏슴으로 群山叺界에 大影響이 잇스리라더라(群山)

禮安主日校施賞

慶北安東郡禮安耶蘇敎會에서는 例年에 依하야 去五日午後八時에 該敎會講堂內에서 幼年主日學校 學生의 施賞式을 擧行하엿는데 長老 李甲元氏 司會로 男女學生의 滋味스러운 遊戲와 唱歌는 聽衆에게 多大한 興味를 與하엿스며 더욱 多數한 來賓의 祝辭가 잇슨 後 盛況裡에 閉式하엿는바 優等生은 女子第二班 李應權이라더라(禮安)

第三回討論會開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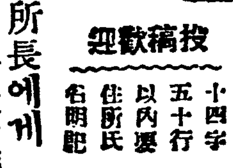
來十八日下午八時半부터 馬山俱樂部會館에서 『完全한 結婚을 하라면 親權監督結婚이 可하냐? 自由結婚이 可하냐?』라는 問題로 亦是 馬山靑年會主催下에 討論會를 開催한다는데 今般 出演할 演士의 氏名은 다음과 갓다더라

監督結婚便 崔永漢 朴容九 李瀅宰
自由結婚便 呂海 尹烈 金容煥 (馬山)

海州民藝總會 音樂會開催可決

지난 六日下午二時에 海州民藝會에서는 北本町天道敎堂內에서 總會를 開하고 臨時議長 劉鉉氏 司會下에 左記事項을 決議하얏다더라

會錄朗讀
一、新入會員報告에 關한 件
一、滿眞、呂德鉉 二人 除名에 關한 件
一、會館移轉의 件
一、音樂會開催의 件
一、委員補選의 件 李雨國 金津籍 金石重 李洪一 四人을 補選함 (海州)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要 住所氏名明記

茂朱郵便所長에게

◇나는 君의 不注意와 監督不充分한 點을 들어 一言으로 忠告코저 하노라 君은 通信機關의 最下級으로 直接人民에게 利害가 多한 郵便所長의 職을 帶한 以上에는 部下事務員及集配人等을 嚴重히 督勵하야 通信에 對한 公衆의 不平을 恒時 注意함이 君의 職務上 當然할 것이다

◇그런데 君은 一切를 事務員에게 放任식히고 配達이 迅速한지 受信人으로부터 如何한 質問과 不平이 잇는지도 모르지 干涉이 업시 다만 內房에 蟄伏하여 잇스니 君아 君의 等閑疎忽로 因하야 受發信人의 怨聲과 不平이 沸騰한 것을 知乎아 不知乎아

◇君도 임의 아는 바와 가티 通信은 될 수 잇는 대로 迅速配達이 第一主義이다 그뿐 아니라 科學이 發達된 今日에 先進文明國에서는 飛行機配達을 벌서부터 實驗하는 中이다 이와 가티 急速을 生命으로 하는 通信配達을 無常識한 集配人에게만 一任하고 監督者인 君은 頓不顧見하니 實로 公衆의 安心치 못할 바이다

◇今에 其實例를 擧하면 君의 區域內 配達은 擧皆 中間配達이다 그 中間 集配人은 곳 區長이나 酒幕집 主人이다 그럼으로 何等 責任업는 中間集配人이 그 郵便을 信實히 受信人에게 傳할 理가 萬無하다 倘或 受信人을 만나면 傳하고 그러치 못하면 休紙가 되고 만다 그러면 그와 가튼 不美한 事가 全혀 集配人의 罪만이 아니라고 斷言한다

◇君은 試思하라 配達區域은 비록 六面이나 山間險路로 里程이 太遠하며 그外에도 鶴山面을 加하야 集配人 三人으로서 此를 幷番配達케 하니 集配人이 아모리 最善을 다 하더래도 事實上 不可能일 것이다

◇이것이 公衆이 不平을 말하는 最大理由인즉 모름즉이 二日預定으로서 二個面이나 三個面의 配達을 指定하는 規例를 改正하여라 萬若 君의 職權으로써 此를 實行키 難하거던 遞信當局에 集配人增員方을 申請하거나 又는 其他 方法으로써 一日 밧비 解決함이 可하다 할 이다(茂朱生)

◇寸鐵◇

【義州】 義州共同販賣에 對하야 斗量의 不平、等級의 不公은 姑舍하고 全家族이 한몸 활에서 쓰고 지우엇는 瀉痢을 當局者의 不注意로 일흔 者가 잇다고 그야말로 昨日到城郭 歸來淚滿巾인가

◇【价川】 外東面龍沼里 朴勝健氏는 十餘年前 平北 百嶺으로부터 所謂 侍天敎 名義로 敎徒等者 三千餘人을 引率하고 价川郡外東面地方에 移住한 後 林致忠 本是 侍天敎를 白白敎로 白白敎를 또 水雲敎로 改宗하여 活動中이라나 잘도 變하는 宗敎로군

◇【羅州】 湖南醫院公醫 金明濟는 그 親友인 羅州郡羅州面土界里 許永奎氏 第三女의 陰病을 治療하여 주고 治療費 一千廿九圓七十錢을 請求하엿다든가 醫者의 仁術은 鑛도 잇다

地方人事

▲平南新任警察部長 伊達四雄氏는 赴任人事次로 七日午前中에 平壤支局을 來訪

南鮮庭球幹部決定

七月十八、十九兩日에 東亞時代及本報의 各支局後援下에 開催할 南朝鮮庭球大會에 對하야 事務分擔을 決定된 幹部는 아래와 갓다더라

義捐金受收 崔春烈 金興善

大東院庭球盛況 優勝은 長湖院軍

忠北大東院俱樂部主催인 庭球大會는 去五日午前十時부터 大東院公立普通學校 코-트에서 開催하얏는바 忠州外 五個處로부터 三十組의 參加가 잇서 盛況이 잇섯는데 最後의 月桂冠은 長湖院軍에게로 도라간바 同日午後六時頃에 優勝旗及賞品授與式을 擧行한 後 多數觀衆의 歡呼聲裡에 無事閉會하얏다더라(忠州)

金氏의 熱誠

平南德川郡沙屯市 金秉校氏는 三四年間 春夏冬 잇는 休期를 利用하야 沙屯夜學會에서 每日 三時間式 敎授하여 오는바 今年에도 이 夏期에 一時間式 繼續할 터이라 함으로 一般은 氏의 熱誠을 稱頌不已한다더라(德川)

盛況을 呈한 江華陸上競技 觀衆은 無慮二千

江華中央靑年會主催로 全江華靑年聯合陸上競技大會를 開催한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同大會는 豫定과 如히 去五日上午十一時에 仙源面冷井里 코-트에서 開催되엿는데 各處로부터 參加한 團體數가 數十에 達하야 頗히 盛況裡에 定刻에 數百勇士의 壯嚴한 入場式을 畢한 後 主催側代表 鄭□奎氏의 開會辭가 잇고 나자 競技를 開始하엿는데 優勝의 月桂冠은 摩尼山靑年軍의 手에 歸하엿다는바 當日 觀客은 約二千名에 達하야 當地稀有의 盛況을 呈하엿다더라(江華)

鈴木朝鮮司令官 信川거처 來南預定

某處에 到着한 情報에 依하면 鈴木朝鮮軍司令官은 軍事上 重大한 使命을 띠고 秘密히 三人의 隨從員을 다리고서 黃海道西岸一帶를 지나 九日午前八時半 信川發 自動車로 安岳方面으로 視察中인데 同日正午頃에 來南할 터이라는데 南浦에서 二三時間 重要地帶만 視察한 後 다시 同四時十分 南浦發 列車로 平壤에 向할 豫定이더라(鎭南浦)

養實學院寄金 碧潼서도 好況

養實學院寄附金募集은 到處마다 良好한 成績을 得하는바 碧潼人士의 同情이 더욱 熱烈하야 多大의 金額이 募集되엿다는데 그 氏名과 金額은 如左하다더라

金炳官 金百圓 李稼鼓 金□□ 磐金鵬龍 洪炳麟 各五十圓 金炳松 金尙俊 任調鎬 崔鵬乾 各二十圓 車斗煥 趙寬浩 桂潮彬 金炳恒 金奎承 黃善慶 姜助祖 李根亨 李承熙 金大柱 裴用桓 金泰源 金毅彬 康信祚 崔錫祚 宋尙鉉 崔仁洙 各金十圓 權□ □天道 金炳厚 李興燮 魯昇奎 金國弼 朴之燦 康龍濟 公得星商店 元鳳 致宗理院 田泳稷 池洪麟 金丙斌 金炯稙 鄭賢國 許相 各金五圓 毛永默 外 諸氏 共二十二圓 (計金 六百五十二圓) (義州)

延草靑年委員會

亘濟島延草靑年會에서는 本月四日上午十時 延草面泉谷里普明講習會內에서 第二回定期執行委員會를 開催하엿는데 議長 玉相牧氏 司會로 前會錄朗讀이 잇슨 後 左記의 議案을 決議하고 同日下午四時 閉會하엿다더라

一、會費收納의 件
二、區內三個所講習會維持의 件
三、區內小作爭議의 件
四、홍치敎徒와 絶交의 件
五、惡地主 舍音과 絶交의 件
六、延草少年團組織의 件
七、亘濟聯盟主催인 夏季社會學講座聽講員募集 件
八、同聯盟主催巡講隊來延의 件
九、女性運動에 關한 件
十、衡平運動에 關하야 積極的 後援할 것
十一、開闢分社(李柱勳氏經營)는 精神的後援할 것 (亘濟)

普明學友大會

亘濟島延草普明學友會에서는 本月五日下午一時 延草普明講習會內에서 第四回臨時大會를 開하고 議長 尹鉉奎氏 司會로 左記事項을 決議하고 同日午後五時에 閉會하얏다더라

決議事項
一、規則改正의 件
二、任員選擧의 件
會長 尹鉉根 總務 玉致學 許奇究 庶務部長 尹鉉奎 事業部長 玉致□ 許哲記 許泰律
三、會費收納의 件 (亘濟)

群山의 少年 竊盜團 五名이 結束하야

群山에는 最近에 이르러 竊盜가 頻頻하다 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今般 益山郡黃登面黃登里에 本籍을 둔 李順明(一四)을 團長으로 하야 住所不明한 朴海潤(一四) 韓吉馬(一四) 金石同(一二) 韓萬玉(一四) 等을 部下로 竊盜團을 組織하야 가지고 大規模로 일히엿든 것을 所轄 群山署에서 逮捕하엿는데 그들은 第一着으로 지난달 三十日에 群山榮町十四番地 雜貨商 石川五郞平方의 덧門을 바스고 드러가 店舖에 陳列하얏든 物品 多數를 도적한 것 外에 여러 곳에서 竊盜질을 하엿다더라(群山)

兒童文集出版

既報한바 平北宣川公立普通學校 附屬인 新義州公立普通學校 分校에서는 本道兒童文集 第一輯 第三輯을 來八月中에 出版할 터이라더라(義州)

栗靑臨時總會

仁川栗柳靑年會長 金興福氏는 事情에 依하야 辭任하고 지난 四日午後九時에 開催하엿든 臨時總會에서 徐得明氏로 補選되엿다더라(仁川)

竹山庭球試合 勝利는 竹山軍에

竹山靑年會少年部主催로 去月廿日午前十一時부터 蟾川公普校와 竹山公普校間에 親善庭球試合을 開催하얏는데 同午後四時에 結局 勝利는 竹山公普校軍에 歸하엿다더라 (竹山)

運動場 審判 林東文 崔漢泳 金聖烈 (光州)

天安基靑發起

天安邑耶蘇敎會에서는 七月十日午後九時半에 牧師 洪淳浩氏의 司會로 基督靑年會發起人會를 開하고 左記要項을 決議하엿더라

一、創立總會 七月十五日午後九時 場所 天安邑禮拜堂
一、會則制定委員 盧□植 金光德 柳來德 (天安)

客月仁郵業績

六月分 仁川郵便局 運輸槪況은 左와 如하다더라

▲乘車八、〇三四人 ▲降車八、九八八人 ▲入場九八六人 ▲手小荷物發送一二二斤 ▲貨物發送一七、五三一 三〇八斤 同到着一六、三一八噸 ▲收入客車二三、一三八圓 貨車五一、三九二圓 合計六四、五三〇圓 前年比八、二二〇圓減 (仁川)

德川春蠶時勢

平南德川邑內 春蠶共同販賣의 七月一日 時勢는 如左하다더라

交雜種 乾繭 一斗에 特等 十圓二十錢 一等 九圓三十五錢 二等 八圓五十錢 三等 七圓六十五錢 四等 六圓八十錢 五等 五圓九十五錢 等外 (德川)

國境武裝團을 取締하자고調印
조선총독부겨무과장、봉텬교섭서장과협뎡
協約調印後의國境은果如何

조선총독부 국우경무과장(國友警務課長)은 얼마전에 봉텬(奉天)에와서 조선국경에잇는무장단취톄(武裝團取締)에대한세목협뎡을중국측(中國側)과협의중이던바 량방에점차량해가되여 구일에국우씨는 총령사관(總領事館)에서 중국측의 고교섭서장(高交涉署長)과 회견하고 됴인(調印)하엿는데 그됴인은정식협약은아니오 쌍방의의견을 교환하는 협뎡이라한다(봉텬뎐보)

橫領金組理事
징역이년에불복

일본 화뎐현웅승군(和田縣雄勝郡)에원적을두고 시내죽첨뎡이뎡목(竹添町二丁目)십륙번디석교리조(石橋利助)의집에류하든고교창치(高橋昌治)(三三)는지난대정십일년륙월이십일일에수원군수원면산루리(水原郡水原面山樓里)이백사번디에잇든사단법인 화성금융조합리사(社團法人華城金融組合理事)로임명되여조합을대표하야일데사무를집행하든중 동년십월 이십팔일에동디조선식산은행 수원지뎜(水原支店)에가서 전긔조합의 예금중에서오백원을차저사사로소비한것을비롯하야 십이년십이월이십일까지 전후십시회에 칠천구백원을횡령소비한사실로지난오월이십륙일에 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궁본재판장(宮本裁判長)으로부터횡령죄(橫領罪)로이년징역의선고를밧고 즉시 그것을불복하고 복심법원에공소를 뎨긔하엿는데 그동안디방법원에서 사실됴사를 더옥엄밀히한후지난칠월에비로소복심법원으로넘겻다 더라

密陽南川江 增水八尺
밀양읍과의 교통이두절

구일아츰부터 비가몹시와서 밀양남천강(密陽南川江)의 증수가팔척이나되여 밀양읍과밀양뎡거장사이에 교통은 두절되엿더라(밀양지국특뎐)

海州에 夏期研究會
약한달동안개회

사상운동사해주지사(思想運動社海州支社)와본보해주지국(朝鮮日報海州支局)에서는 금년하긔에 사상운동사동경본사(思想運動社東京本社)에잇는 송언필(宋彦弼)군이 귀해한긔회를타서 일반청년들에게 사회생활에대한상식을 보급코자 도라오는칠월부터 하긔연구회(夏期研究會)를개최하야 약한달동안을밤마다밤마다 조선일보 해주지국루상(樓上)에서열터인바 자세한규뎡은 후일다시 발표할터이더라(해주)

北京國民大會에서 大衆을興奮식힌同胞
조양대학에재학중인류군 벽두에등단하야일장연설

지난달 삼십일북경텬안문(北京天安門)에서열린 국민대회에는 어마마한군중이 모히든가운데에는 조선, 인도, 며만, 토이기, 일본등의동양각국사람들과 독일사람外지도 참가한사람이 잇섯스며그참가한 외국인들은 각각일장의연설이잇섯는바 그중에서 외국사람으로 뎨일먼저 등단한사람은류긔석(柳基石)이라는동포엿셧다 류군은현재 조양대학에재학중인 학생으로서 이날뎨일먼저 등단하여서 친동한사긔로장시간의연설을시험하엿스며연설군중은 비상히흥분되야 중화민족만세와 『〇〇〇〇타도 〇〇뎨국주의』(〇〇〇〇打倒 〇〇帝國主義)를 놉히불러만흔 중국인에게 흥분을주엇고 그담으로는 독일인, 일본인, 인도인, 며만인, 토이기인등의대표가 차뎨로일장연설을시험하엿더라

軍資募集員二名
江陵署에逮捕되여
엄중한취됴를밧는중

근래강원도 일대로활동한 군자금모집원 두명과그협의자로 잡힌두사람합 네사람은 얼마전에 강릉경찰서에 데포되여 함흥디방법원 강릉지텽(咸興地方法院江陵支廳)검사국에서 엄중한취됴를 밧는중이라는데 공판긔일은아직미뎡이라더라(강릉)

東幕道路問題
길이무허저서 동행이어렵다

부외동막(東幕)으로는구로조믭할뿐아니라연강(沿江)의곡물(穀物)과어물(魚物)의집산디(集散地)로일홈이놉흔중 이에따러사방으로부터 모혀드는사람이 항상거자를 이루다십이하야 자못교통의 번삽함이 시내큰길에지지안홀만한데 이곳의가장 주요한길은 냇가큰길로 하루에수만사람이 시각을다투어 왕래하는터인데 이길이작년장마에파손을당하야우마(牛馬)와수레의

慶北各地雨量
의성이뎨일만하

경북각디에 수삼일이래로 계속되는비로인하야교통이두절되얏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팔일저녁에까지의 당국에도착한 보고로보면 큰일이업슴으로 비만개이면 곳개통될것하다하며 대구측후소에도착한뎐보로보면각디의우량은아래와갓더라

大邱 (昨當) 三斗八升
尙州 七斗九升
英陽 一石一斗五升
義城 一石二斗六升
安東 六斗二升
(이상은모다칠일부터 팔일아츰까지의수량)(대구)

平壤署員 市內서도活動
한명데포

겸이포(兼二浦)에모중대사건이 돌발하야 평양디방법원과 평양경찰과 일시에대활동을 개시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다시평양경찰서김경부(金警部)는형사한명을 버동하고 수일전에시내에 출장하야 종로서의응원을어더가지고 극비밀리에 대활동을 개시하엿던중 팔일오후일곱시경에 드듸어 시내모처로부터 원적을포천군서면 신읍리(抱川郡西面新邑里)에둔〇〇(二五) 한명을 데포하야 종로서에류치한후 역시활동을 계속중 이때 그는데포된 모뎡련두자수명을데포코자 할터이라하며 그내용은 엄대비밀에부처 자세히알수업스나 전하는바에의하면 사법과고등두곳에 관련된 모중대한사건으로 별항의 겸이포사건과도관련이 잇는듯하다더라

正直한學生
돈십오원을 주인에게차저주엇다

강릉군사천면산대월리(江陵郡沙川面山帶月里)리종회(李鍾會)는현재강릉공립보통학교오학년 학생인바 지난칠일에 집으로 도라오는길에 길가에서 압헤가든말군(馬夫)이 흘린돈 십오원을 주어가지고 멀리가버린말군을 차자 주엇다는데 돈일엇든사람은감사함을 마지못하야 사례의뜻으로 돈몃푼을 주엇스나 학생은그것은 맛당히할바이오 사례를 바들것이아니라하야 돈을 밧지안엇더라(강릉)

普天敎主 車京錫의窮狀
륙월일일차경석생일에 돈이업서추념을거둔다
社會를眩惑하든怪物의末路

음력으로 륙월일일은 보텬교주차경석(車京錫)의 생일이라 그날은 보텬교도는 보텬교륙대치성(六大致誠)의 한날로치는바 그날을이왕에는 은밀히직혀왓스나 이제공공연하게 원성홍회까지 참도하게된 오늘에는만흔교도를 한데모와노코 큰잔치를하며 어리석은백성을 미혹할만한 연설도하고저 하는것이차경석과 그이하각방주들의 방침인데 모화가에 궈신만고한금권을 혹은 니려바리고 혹은 잘남비한때문에 그것이지금은 잘드러오지 아니하야 거창하게시작한 몃몃채의집도 필역할날이묘연할뿐 아니라 위선큐박하게도라오는 그생일잔채를 엇지할가 하는것이 문뎨가되야 남방주(男方主)한명에 오십원씩 녀방주(女方主)와 선화사(宣化師)는각사십원식으로 그날에참예여부를 불문하고 의례히가저오라고 낫낫치 교령으로통지하엿다한다(정읍)

讀者慰安 活動寫眞會
금십일오후에
本報高陽支局主催

본보고양 동부지국(本報高陽東部支局)에서는 고양동부일대의본보독자를위안(慰安)코저단성사순회단(團成社巡廻團)을청하야 금십일 오후여덜시부터 고양군서독도면(高陽郡西纛島面)양대진(楊大鎭)씨집에서활동사진대회(活動寫眞大會)를열고장화홍련뎐(薔花紅蓮傳)을비롯하야자미잇는 사진을 빗초일터인바 입장은 본보고양동부독자에게보내는 무료입장권(無料入場劵)을가지고오시는이에게 한하야무료로입장케할터이더라

街路에彷徨하는 青年夫婦
형과동거하다가 무고히쫏겨나서

지난삼일오후 두시경에 충주읍가로상(忠州邑街路上)에서엇던청년부부가 갈바를몰라 신세자탄을하며 방황하고잇섯는데 그자세한말을 드른즉 그들은충주군신미면 룡원리 이십팔번디차병준(忠州郡薪尾面龍院里二十八番地車秉濬)의아우차경준(車景濬)의부부라는데 그는자긔형 병준을위하야 수년간을 분주하고 성을을떨러가며 가사정리와농업의 일데를 시종여일하게노력하야 오든바 전긔병준은그의협의 말만듯고화목을 이커버리게되야 가뎡이불화함은 물론이오 더욱이형뎨의 불목까지하게되야 그아우에대한구박은 점점심하더니 지난달 하순경에는무고히내여쫏침으로방황한식을하게되엿다는데 보는사람마다측은히생각할뿐아니라그형의우애업슴을분개하더라(충주)

失戀으로 青年縊首
마츰괴자가발견 즉시구조하얏다

김천군김천면욱뎡(金泉郡金泉面旭町)감천호안공사(甘川護岸工事)한언덕에서는 지난오일 새벽두시쯤되야 청년남녀두사람이 무엇이니무엇이니하며 새벽적막을 깨트리다가 마츰내남자는마치 리수일이가 심순애를떼여바리듯이 옷을뿌리치며 『멍텅구리 연애생활 아! 내가멍텅구리다』하며 녀자를발길로탁ㅣ차더니 넥타이를 풀어방축으로올라오는 사다리로 갓가히가서목을매여 늘어짐으로 마츰그곳을 지나든 본보김천지국긔자가 발견구조하엿는데 그남자는 박〇〇(二五)이며녀자는김〇〇(十九)으로 작년재작년이년동안을 모커학교에 교원으로잇슬때에 둘의사랑은 말할수업시 깁혓섯는데 그녀자가 우연히 그곳에잇지못하게되야다른학교로가고남자도다른곳으로가게되후매일한장식의 통신이 잇다가삼개월전부터 아모소식이 업슴으로 남자측에서는 의아하든중 녀자는벌서부터 **다른사람**과결혼을하게되엿다는말을듯고 남자는 분함을이기지못하야 한번맛나기를원하다가 그날그와가티 맛낫는데그남자는너무나분하야녀자를칼로찔러죽이고자기도죽고자그곳까지다리고와서 참아 찌를수업고자긔도죽으랴다가칼까지빼앗기고 그와가티 목을매여죽고자하얏다고하더라(김천)

常習窃盜犯
친구집에서절도

주소를고양군한지면 한강리(高陽郡漢芝面漢江里)에두고 도라다니는손룡석(孫龍石)(三二)은경인(京仁)간을통하야남의자는틈을타서 절도질한것이 십이건이라는데 대개는의류(衣類) 등이라하며 피해가격은 칠백여원이라는바 거월삼십일에 인천류뎡(仁川柳町)친구집에들려왓다가 인천서원에게 데포되야 취됴중이라더라(인천)

鳥致院警察署長 朝鮮人庇護로被打
청부업자일인에게서삭전을 바다조선인에게준것이동긔

지난달삼십일밤에 충남연기군조치원길야뎡(燕岐郡鳥致院吉野町)에잇는 북일루료리옥(北一樓料理屋)에서개최된 연기군과청주군(淸州郡)에거주하는유지와 관민의 모모제씨로조직한간친회의이차회(二次會)석상에서경찰서장이 실언하야 여러인사에게주먹비를 밧게되야 방금주목중이라함은 이미본보에 보도하엿거니와 그리면에는 무슨비밀이잠겨잇는 모양인바 근일에전하는말을 들으면 전긔와가티서장이실언하야 구타를 당한것이아니오 마츰그이차회석상에 모힌인사중에 서장배척자가 다수히 석기어잇슴으로 서장도미리그래도에 주의하고잇다가 마츰변소에갓다가 문을열고 드러와안즈려 할때에 갑작이정수문조(井手文造)가주먹을들어서장을치랴할때에 서장은 그손을막자일방에서무엇인지맘속의말을내이며시선이 서장에게로쏘처고그형세가위급하게 되엿슴으로 서장은 급히몸을피하엿다가 이튼날관계자모모 제씨를불러다가 설유에그치고 말엇것스나 자연여러사람들이 무슨비밀이나 잇는듯이말을 하지아니하고 수근거리게되야 시민들은중에서 하고이말저말이오권되야문뎨가크게되고 겸하야 모신문지(某新聞紙)상에는 서장의 실언으로그와가티살풍경이일어낫다한관터러 서장의비평이 심하여젓는데 지금 그자세한내막을 드른즉조치원은 본래조선인과 일인(日人)의차별이각관공텽에서 **심하다는** 이보다도례사(例事)가되야비난이놀도록하지는 동시에 전날에조선인일본인간의차별을 텰폐코자 활동하든고죽하면장(故竹下面長)은 생각하여오든바 현재조치원 경찰서장이부임이후로조선인에게다대한 동정을주어 본보에루재하여오든 조치원면에서 삼십륙만원의 거액으로긔공된 조천개수공사(鳥川改修工事)에서발생된청부업자들이인부임금을지불치아니하고 도주혹은 지불거절등으로 피해자가다수하야 원성이 놉하지는것을 렴려히 묘사하야 각상뎜또는 음식뎜기타 인민에게 피해된금액중 삼만칠천오백여원을 청부업자의손에서바더 내게하고 계속하야 용서업시취됴하는고로 청부업자들이 다대한불평을 가지고서장의 배척을 운동하다가 지난은혼식일(銀婚式日)에도 본보에ㅡ긔재한바와가티 불경사건(不敬事件)이생기어서 일시문뎨가 되엿섯는데 그후로는다시 서장의배척열이 표면에는 나타나지아니하나 리면에는계속되여 오다가 전긔와가티 경찰부장과 외처사람이만히 모히고시민도 만히모힌것을 긔회로하야 간친회를마치고 서장의배척을 몃몃사람들이 밀의(密議)하고 경찰부장압헤서 서장을배척하는 의사를표시하면 물론서장이 다른곳으로전근하겟다는 의사로 서장을구타코저 하다가 서장이먼저이형세를알고 몸을피하게되엿든것인데 서장의배척파는 결국실패에 도라갈는지 승리에도라갈는지 알수업스나조선인측에서는서장을 배척코저 하는일파를비난하며 그자들을 모라낼수잇스면 모라내자고 공론이분분하다는데 장래문뎨가 적어지지는아니할모양이라더라(조치원)

鄭士斌의自殺騷動
사회에나설면목이업다고 유서를써노코아편을먹어
間島永新學校問題의眞相(三)
間島一記者

이와가튼 동지를밧든 일고병자랑은 간사뎡사빈과 최두남(崔斗南)두명을다리고 영신학교로와서 윤화수를 차저보고 서류경영권리(經營權利)에대한 담판을 한결과 서르는졍하고 그날저녁즉 이십삼일오후에 광명회 의원회(議員會)를 열고 로부터 소집하고 전말을보고하게되엿든바 꿈에도 생각지안하엿든 영신학교의 토디건물일체의 사중이일고의명의로 잇슴으로 이에의원일동은 엄청남에 동시에 이와가튼 죄악이잇슴을 미리부터 추상할뿐아니라 금번 영신학교 문뎨에대하야 간부이삼인의단독뎍 행동으로 처리한 것은 일반회원을 **멸시하는** 것이라하야 여론이분분한중에특히광명회의사업을진행키위하야 조선총독부나(朝鮮總督府) 일본외무성(日本外務省)에 보조를밧는다는것은 불미로불가할뿐아니라자긔주의에 위반됨다 하야 회원중김정과윤정리(尹正理)씨는 그자리에서 광명회탈퇴(脫退)를선언하고즉석에서 퇴석하게되매 이에회원은비상히 흥분된가운데에서 산회하고마럿다 이와가티 윤화수씨이 여디업시사회에 폭로하게되매 사회에서는 더욱히흥분되야 **그진상을** 됴사한결과 상에 긔록한바와가튼 인장위조와 문서위조의 사실이 발로하게되엿슴으로 뎡사빈은 도더히 사회에나설 면목이업다는량심의가책을밧고 지나간 이십일 오후두시경에 경찰서장에게자수(自首)하는유서(遺書)와그외삼통(三通)의 류서를 남겨놋코아편(阿片)을먹고자살을하려다가 집사람에게발각되야 목뎍을달치못한것이며 이사건이 발생하게되매 총령사관 경찰서에서는 돌연활동을개시하야 윤화수를 구금하는동시에 가택수색(家宅搜索)을하야 다수한 **증거서류**를압수하고일방으로는 뎡사빈의신변을 엄중경계하는동시에 경찰관의 눈동자는 다른방면에까지 구을기시작하엿다 사건이여긔까지 미처게되매 일반의주목은 조선인민회장강근(朝鮮人民會長姜槿)씨에게까지 미처게되야 보통사람들이소유토디(所有土地)나또는가옥사중원(家屋査證願)을넘녀에는반드시민회비(民會費)를밧고라야만 내여주든것인데특히 **영신학교** 사중원에는이를묵파(默過)하엿스며그뿐만아니라 넉달이나 지난오늘까지영신학교 문뎨로인하야 그와가티사회의여론이 들설릇 끌음에도불구하고 침대비밀을 지키움은그리유를 알수업다는등의 여러가지말이 떠도라다니든 가운데에 지나간이십사일 오후네시경에 병석에누웟든 뎡사빈까지도구금을 당하게되고 이십륙일에는 전긔강근씨가 또한증인(證人)으로호출을당하엿슴으로 일반의 어중한심문(審問)을밧게되고 **증거서류 몰압수하고일** 생하게되매 경찰서에서는 돌연 가택수색(家宅搜索)을 하야 **중거서류** 를압수하는동시에 경찰관의 눈은 뎡사빈의신변을 엄중경계하는동시에 경찰관의 눈동자는 다른방면에까지 구을기시작하엿다

이십사일 오후에어르려서는 돌여히 동경시내에광명회주뇌자(光明會主腦者)등을비롯하야윤화수(尹和洙)강근(姜槿)등을 매장방멸하라는경고문(警告文)이 산포되엿섯다

「鄭君에게 未安千萬」
사중의위조는 나도모르는일이외다
光明會主幹 日高氏談

이제이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계되여잇는 여러방면의 말을드려소개하건대 위선광명회 주간(光明會主幹)일고병자랑(日高丙子郞)씨는말하기를 『이번돌발사건은 너무나뜻밧게일이낫가 무엇이라 말할수업슴니다 그저오늘까지 본회를위하야 힘써주시든 여러분에게대하야 미안할뿐 이외다 사건은 벌서경찰문뎨가 되여잇슴으로 나로서는 무엇이라말할수업스나 뎡사빈군은 적어도 사오년동안이나 침식을잇다십피 하면서본회를 위하야 애써일하든터에 윤화수의요구를 거절키어려워서 아모리 사려도 분변치못하고 그와가튼죄를 범하엿다가다시 사회에서 설면목이업슴을 스사로깨닷고 그와가튼최후의 행동을 취하엿슴에 대하야는 평소군의 성질을잘 리해하는나로서는 실로동정을 금할수업슴니다 그리고 윤화수의 일로말하면 나는모지알지못하엿든 사실 이지요 그저사중이 확실하게 윤화수의명의로 변경되엿고 또는이사중으로 나와사이에 매도계약(賣渡契約)을데결한것이엇스닛가 귀신이아닌나로서 엇지알엇슬리가잇슴닛가ㅣ그리되엇든터임으로 의원회(議員會)를열엇슬때에도 나는아모주저업시 매도증서를 위원들에게뵈엿든것인데 그후십오일아츰에야 비로소 일이 그와가티된줄을 알엇슬뿐이외다 그런데 첫재윤화수의 심리를밝힐수업슴은 식산계부채금은 천원이나 일천삼백원을 다지불할지라도 일을깨긋하게 하자는 뎡군의말을듯지안코 그와가튼행동을감행한것이지요 하여간 일이이러툿 되얏스닛가 이즈음에는 별로 출입도하지안슴니다』

父의遊食이밉다고 自家에放火한子息
흉년에아비가놀고먹어 그것이답답하다고방화

칠월사일 상오구시 이십팔분호남선(湖南線)정읍역(井邑驛)북행렬차를타고 전주디방법원(全州地方法院)으로넘어가는 죄수하나가잇섯는데 그는 호남선신태인(新泰仁)역전구사동(九四洞)사는김옥신(金玉信)으로 이러한흉년에 식구는만흔데다가 자긔아버지의 아모직업업시 놀고먹는것을 답답히녀여 제집에다불을질은것이 죄가되여서 금년삼월경에 잡히어 정읍경찰서로왓다가 취됴를밧고 전주디방법원으로넘기는것이라더라(정읍)

南北商會의 明太代金
‖請求訴訟
협성측에서 화해를청구

함경남도에 유수한 무역상삼호 남북상회(三湖南北商會)와원산에굴지하는 무역상협성상회(協成商會)간에는 이래삼개년동안 서로거래상 관계로 소송이잇서 일반무역계에서 주목하여 오든바결국 원산협성상회에서 아직 소송이 종결도되지안어서 화해(和解)요구를하고저협성상회주인평미묘일랑(平尾卯一郎)외에 여러방면 무역상을 간접으로소개하야 삼호남북상회로 보내여 교섭하는중 이라는데 그소송의 내용인즉 지금으로부터 삼년전에원산 협성상회에서 함경남도퇴조(咸南退潮)에출장소를설치하고 삼호남북상회로 출장소주임리명하(李明河)와사무원한민항(韓敏恒)을보내여 계약금오백원만 **몬저내고** 명태 륙십태(明太魚六十駄)를사서달라고하기때문에 그때남북상회 주인김명교(金明敎)씨는신의만밋고자긔상회돈으로 몬저사서 주엇는데 그들은군대환(君大丸)이란풍선에시려서 원산본뎜으로 보내고리명하는 차에안저서 본뎜으로명태대금을 가질러간후 행인지불행인지 명태시른 군대환은 정평근해(定平近海)를지나다가 그만폭풍에 전도되야명태는전부 침몰되고 사람은다 행이 사라난 일이잇섯는데 그때 **협성상회**에서는이급보를접하고 현장에뎜원을 파송식혀한동안 매우소란 하엿섯는바 불의의 재난을 당한협성상회를 동정하는 생각으로 삼호남북상회는 그후대금을 독촉하지안코 일개월후에 주인김명교씨가 직접원산 협성상회로 나가명태갑을청구한즉 그때 주인평미묘일랑은 우물주물하면서 명태대금삼천팔백원(三千八百圓)을주지안는다하야 함흥디방법원 민사부에 명태대금청구소송을 뎨긔하엿든것인데 뎨일심에서 삼호남북상회가 패소를당하고또다시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엿스나또한 패소를당하야 일반무역계에서는 **남북상회**의패소에동정하고잇섯는바 사실인즉 리명하와경성에 잇는무역상 일본인석교엽조(石橋廉造)는두명이위증을한연고이엿슴으로 남북상회에서는 지난사월삼십일에 일변상고하면서 연하야전긔 두명을걸어서위증죄(僞證罪)로함사고소를 함흥디방법원검사국에 데출한바 지난번에두명을 검사가취됴한결과 예심에걸리게되야 그제야 협성상회에서는 지난륙월십일날에 위증한 석교엽조가직접삼호 남북상회주임 김명교를방문하며화해를요구하고 **며칠후에** 또협성상회주인평미묘일랑이 퇴조출장소를두엇든 집주인최재용을 다리고 남북상회 주인김명교에 대하야 『원산으로 합의하가서화해하고 돈바드라고』 청구하엿스나김명교씨는『원산나갈필요도업고 만삼사년동안 소송을 하느라고 손해가 만원이상에 달하나그것은 내가동정하야 그만두고다만 원금과 실비를합하야팔천원(八千圓)이니그것만내라』고한즉 그때해결되지못하고협성상회주인은 김명교씨가 원산나간긔회를타서 여러사람을 보내여오천오백원(五千五百圓)까지바드라고하엿스나 남북상회의 태도가 너무강경하야 불응함으로 문뎨가 해결되지못하고 잇는중이라한다(함흥)

안해逃亡한雙 男便搜索한雙
경북안동의 일장희비극

지난륙일 경북안동군 풍산장터(慶北安東郡豐山市場)에서는이곳저곳에서 남편들이 녀자들을 붓잡고 남편은가자거니 녀자는 못가겟다거니 하야한활극이 이러낫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그사람들은모다 영주군 영주면상줄리(榮州郡榮州面上茁里)에사는자들로 한편은문영수(文永洙)(三九)와그안해김모(金某)(一八)이오 한편은 강룡이(姜龍伊)(二五)와 권수노미(權壽奴味)(三五)로서원컨에 두녀자가한가지로 집을나와안동군 풍산면하리동 강순이(安東郡豐山面下里洞姜順伊)의집에 숨어잇든바자긔남편들이 이것을 알고차즈려온것이라하며 그나온 원인인즉 권수노미는겨우 열두살되는해에 어린놈으로 출가하야모든고통을 격그며 학대를 바더오든바 멸영은그때에 나온것이라하며김모란 녀자는오직 두부부가살든바 남편은이리저리 다니며먹을것은 조곰도도아주지 안음으로 하도궁주림에 견듸다못하야 최후로욕디를 차즈려고부평초가티 떠나온것이라는데 마츰내 엽고업고하여서 모다다리고갓다더라(풍산)

有夫女를强姦하려다가 그嫐母를食刀刺傷
범인은현장에서즉시데포
피해자는사주이상의치료

지난이십팔일 오후칠시경에 황해도옹진군마산면온천리(黃海道甕津郡馬山面溫泉里)에엇던 랭면집직공(職工)으로잇는김정산(金貞山)이는 술이 반취하야 그압헤서 음식점영업을 하고잇는김정수(金貞洙)의 안해 리찬화(李贊花)라는녀자의아름다운자색에 취하야 부억가에서홀로 **밥을짓고** 잇는틈을타서 두말업시뛰여들어안고힐난을하매이녀자는너무도어이가업서 그대로준절히일러보내고자하엿스나그럴사록이남자는더욱더힘잇게껴안고『그까짓 너의남편과 그의아우하고두사람만죽이엇스면그만인데 무엇이그러케 어려우냐』고하며욕을 뵈이려하매 이녀자는더욱 더놀래어 소리를질을지음에 마츰그의 동생되는 김영수(金泳洙)가이것을보고황겁히 뛰여들어가 그자를붓들어 대단히 책망을하야 몰려보내고저하엿스나 이자는 적반하장으로식도(食刀)를들어김영수를찌르고저하매 그의어머니되는 당년륙십칠세의 로인김광춘(金光春)이가뛰여들어가서 자긔의아들의위험을막고저하다가결국의 인팔들찔려피하골막(皮下骨膜)에이르기까지 깁히임촌 오푼의상처와소동맥(小動脈)을끈허서 당장에 **류혈이림** 리하야현장이 참혹하엿스나 즉시 온천의원에서 응급수술을한결과 사주일이상의 치료를요한다하며 그자는 당장에 잡히어 엄중한 취됴를밧는다는바 피해자측으로 부터고소를뎨기하얏다더라(해주)

大村海軍 飛行墜落
한명즉사 한명중상

대촌해군항공대(大村海軍航空隊)에서는구일오전열시부터십년식함상뎡찰긔(十年式艦上偵察機)로써사격(射擊)연습을하던중강초(江草)일등수병은조종(操縱)인견총(犬塚)일등수병과가티라고 비행중긔데에 고장이생기어약삼천'미돌'의공중으로부터 착륙장(着陸場)에 착륙하려다가 땅에떠러저 비행긔는파손되고강초는즉사하고견총은중상을당하엿다더라(좌세보뎐보)

汽車에轢死
문산、장단간에

팔일오후세시경에 경의선(京義線)장단(長湍)문산(汶山)사이를 진행하는남행혼합렬차(南行混合列車)이십륙호가 마정천(馬井川)교량을건너오랴고할지음에 사십가량되는 사나히가다리를 건너가다가 치여죽엇다는데 아즉 성명과주소는 알수업다더라

間島和龍에雹災
피해면적오백여뎡보

간도화룡현명신사(和龍縣明新社)와연길현수신사(延吉縣守信社) 일대에는지난달이십일오후세시부터 약삼분동안우박(雨雹)이쏘다저서농작물에손해가 막대하다는데 그면적은 대략오백여뎡보에 달한다하며 또는그디방은 작년한재로인하야 신곡(新穀)이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든중 이와가튼뜻밧긔 참해를당하엿슴으로 일반주민은 눈물로세월을보낸다더라(간도)

泰山이차저가오

지난달이십일 오후한시경에 구룡산대도뎡(舊龍山大島町)길거리에 년령오륙세가량의 사나히한명이 집을일코 방황하는것을대도뎡 백사십칠번디 리한선(李漢善)이라는사람이 다려다가 목하 보호중인데 그아이의일홈은 성태산(成泰山)이라고 한다는바의복은 광목저고리와 바지를입고고무신을신엇다고

市井雜事

◇牛乳十二瓶깨트렷다 시내서사헌뎡(西四軒町)오십륙번디우유배달(牛乳配達)리계원(李桂元)은 구일아츰에 중학다리의로소격동(昭格洞)근처에서 자긔의 부주의로배재(培材)고등보통학교생도지병구(池炳九)(二四)와충돌하야우유열두병을 깨트리엇는데 량방에상해는업다고

휘파람

▲지난팔일오후세시경에장성군북일면오산리김모(長城郡北一面鰲山里金某)의아들김공수(金恭洙)(一〇)가동군사가리역(四街里驛)부근냇가(川邊)에서 목욕을하다가 무참히빠저죽은것을 그동무아이생도들이 발견하얏다한다▲시데는 소관주재소경관과 그생도의담임교사 기타부근사람 수십명이모혀서 겨우차젓스나 다시회생할가망이 업다는데▲하긔이당한이때에일반학부형은특히자질에게 주의를 식힐필요가잇다

生의復活ㅡ悲觀으로樂觀

精力活力의源泉

一日一回就寢前服用의에모고ー루(エモゴール)作用

本劑는熱帶地方에서産出하는極히高貴한動物의睾丸(불알)中으로부터抽出한精分과ホルモン(호루몬)植物性의特殊劑를主劑로하야製出한最新美味의錠劑로서毎日就寢時一回式服用하면前記한影響이有한本劑의主劑는極히廣汎하나就中左의各症에用하면奇妙홈

生殖器의障害 男女不〇然의行爲又는〇事過度로부터起因한感覺모鈍早〇夢〇陰〇官能不全發育不全等의生殖器障害를復活케홈

生殖器性神經衰弱 所謂腦病神經衰弱이라稱하는病中에는生殖器障害에起因한者ㅣ多하야其容體는生氣、氣力乏絶、頭腦의統一이不能하며、記憶力思考力減退、諸般의健忘症又는空想、頭痛、不眠、觸覺感覺力이漸退

婦人性的缺亡 婦人性育的不全發及各種의原因으로부터來한無〇覺及減少生殖器性神經衰弱으로부터來한失眞ㅣ의頭痛眩暈逆上等各種의容態를現出홈如斯病者에게エモゴール(에모고ー루)를服用하시요

老者도少年으로 俗에云色과慾의世上이라하는俗言과如히色慾을失하면何事에던지滋味가無케됨所謂老衰하야努力活力氣力이無하야活動이不可能케됨是에反하야精力을持續하면壯者를凌하고元氣가壯大하야百歲外지라도健康히活動케되오エモゴール(에모고ー루)는如斯한老弱者를復活케홈

壯者는益益强壯함 エモゴール(에모고ー루)前記諸症을復活케할뿐不當라健康者가恒常服用하면精力의消耗를補하고元氣를漸漸强大케하며活力을增進하며頭腦를爽快케하야말할수업는愉快를增進하는事ㅣ頗히奇妙홈

無上의爽快味 然하면前記何症狀에던지適合한人은勿論이고精力을增進하야人生無上의爽快味를得코저하는人은必히本藥을試用하시요반다시本藥의特長及効能에感歎하리다本劑의應用을與히宜傳하압나이다

此種의藥品은現今全世界에一種의流行하는者로써我國에서도近來愛用者의激增함에從하야如此한藥品의續出함을見홈弊店發賣의エモゴール(에모고ー루)는其効能의點과服用法이他藥과一種의異한特長을有홈

定價表

十回分	金參圓
廿回分	金五圓
四十五回分	金拾圓
百回分	金貳拾圓

御注文의方法 發賣元에御注文하시는人士는右記藥價를郵便小爲替나振替貯金으로送金하시면着金하는대로當方別冊으로密送홈又는代金引換도取扱하나此는金貳拾錢만郵便切手로先送을願홈代金中에서二十錢은除하고發送하압나이다

京城支店及附屬醫院設置 今般各方面의希望에依하야京城支店及附屬醫院을新設케되얏슴니다特히當支店으로直接御注文하시는분에限하야는小包料를不要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電話本局一六八〇)(振替京城一四二五八)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電話小石川二七七七)(振替東京三八五八) 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話長本局五八七)(振替大阪五五五八) 電停前
附屬醫院 本支店內에附屬醫院設備가有하야何人에게던지診察治療를하는故로病者는來店하시요